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34권 3호(2026): 233-266

http://dx.doi.org/10.17841/jocag.2026.34.3.233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치매 부모 돌봄과 사별 후 회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황 정 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치매 모친을 10년 이상 간병하고 사별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이 사별 후 회복 경험에서 지니는 의미를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 1인을 대상으로 총 8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상의 잠식과 실존적 붕괴', '관계의 해체와 돌봄의 실천', '회복의 자원과 삶의 재구성'의 3개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는 장기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해체, 모호한 상실과 사전 애도를 경험하였다. 사별 이후 그의 삶에는 돌봄의 종료와 노동을 통한 자립, 건강과 가족관계의 회복이 함께 일어났으며, 모친에게 남아 있던 신앙적 흔적과 교회공동체의 지지는 그가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영적·관계적 자원이 되었다. 특히 돌봄 기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은 사별 후 모친의 마지막을 지키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백으로 다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치매 돌봄과 사별을 연속된 상실 경험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신앙적 흔적과 신앙공동체가 사별 후 의미재구성에서 지니는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탄식, 공동체적 돌봄을 아우르는 기독교상담의 전인적 돌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치매 돌봄, 중년기 남성, 부모사별,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

* 인터치상담사역부 상담사

www.kci.go.kr

Ⅰ. 여는 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년의 삶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의 삶은 이전보다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기대수명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국가지표체계, 2026).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치매를 비롯한 뇌신경계 질환은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환자 개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역할, 경제적·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김보경, 2016; 김영희, 2022; 전성숙, 조경진, 2017). 따라서 치매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매의 특성상 돌봄은 단기간에 종료되기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돌봄자는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위축 등을 경험하게 된다(Brodaty & Donkin, 2009; Cerejeira, Lagarto, & Mukaetova-Ladinska, 2012).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 돌봄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효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녀가 돌봄을 쉽게 중단하거나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강영미, 2020; 고선강, 2012; 박준희, 2026). 이에 따라 치매 부모의 장기돌봄은 돌봄자의 개인적 부담을 넘어 가족관계와 삶의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생애사적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년기는 직업과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부모의 노화와 의존에 대응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이 중첩되는 시기로(김은정, 2018; 서수균 외, 2015), 부모의 치매는 자녀를 보호받던 위치에서 보호하는 위치로 옮겨 놓는 역할 전도를 가져온다(권정화, 2025; 조윤숙, 김성환, 2025).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경제적 책임을 크게 요구받는 중년 남성에게 이러한 돌봄은 생업과 가족생활 사이의 역할 과부하로 이어지기 쉽지만(고선강, 2012; 정수아, 2023), 기존 연구는 주로 돌봄 부담과 우울, 서비스 욕구 등을 다루어 왔고 중년 남성 돌봄자의 관계적·실존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김진화, 정남운, 2023; 박준희, 2026; 정경림, 2022).

더 나아가 치매 부모의 사별은 일반적인 부모 사별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치매의 진행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기억과 언어, 성격과 관계적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국내외 치매 가족돌봄 연구가 돌봄 과정의 관계적 변화와 상실, 사별 전후

www.kci.go.kr

의 애도 경험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으나(김진화, 정남운, 2023; 박지선, 2020; 양준석, 김순경, 2021; Crawley et al., 2023; Meuser & Marwit, 2001), 장기간 치매 부모를 돌본 자녀가 사별 이후 돌봄의 경험과 관계적 상실을 어떻게 기억·해석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통합해 가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기독교인의 치매 돌봄 및 사별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독교인에게 부모 돌봄은 윤리적 도리와 함께 부모를 향한 사랑과 섬김, 신앙적 책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와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적 가치체계가 흔들리며 신정론적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김규보, 2022; 김신구, 2025; 윤득형, 2018). 부모의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 상실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체성과 인간적 존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노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돌봄의 부담과 신앙적 책임 사이에서 깊은 죄책감과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치매 돌봄은 기독교인의 신앙공동체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부모를 돌보는 가족은 시간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예배와 교회활동, 소그룹 및 교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신앙공동체로부터 이탈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돌봄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돌봄적 환경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김신구, 2025; 최주혜, 2021; 황윤하 외, 2023). 교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며, 치매 환자뿐 아니라 장기간 그들을 돌보며 상실을 마주하는 가족의 신앙적·정서적 어려움까지 함께 보살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치매 돌봄과 사별은 의료적·사회복지적 지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관계, 신앙과 영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김연수, 2021; 이창규, 2017). 기독교상담은 치매 환자를 기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Keck, 1996; Swinton, 2012), 돌봄자가 겪는 고난과 상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도록 도우며(김규보, 2022; 안경승, 2014), 신앙공동체는 고립된 가족에게 관계적 지지와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하재성, 2020).

이에 본 연구는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를 적용하여 치매 부모를 장기간 돌본 후 사별한 한 중년 남성 기독교인의 고유한 경험 자체에 주목하

www.kci.go.kr

고, 그가 돌봄 과정에서 경험한 실존적 고난과 관계의 변화, 사별 이후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회복해 가는 경험을 탐색하되, 특히 모친에게 남아 있던 신앙의 흔적과 신앙공동체가 그 경험에서 지니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매 부모를 돌보고 사별한 중년기 기독교인의 경험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를 확장하고, 치매 가족 돌봄자와 사별자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돌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과 세부질문은 다음과 같다.

치매 부모를 장기 간병하고 사별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은 사별 후 회복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1. 참여자는 장기 돌봄과 사별의 과정에서 삶과 관계, 신앙의 상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였는가?

2. 사별 이후 삶과 신앙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모친의 신앙적 기억과 신앙공동체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

Ⅱ.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치매 가족돌봄과 중년 남성돌봄자의 경험

중년기는 직업적 성취와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이라는 다중의 발달적 과업이 중첩되는 시기이다(장휘숙, 2012). 성인 자녀는 성장한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의존의 과정에 진입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김은정, 2018). 특히 노부모에게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장애가 발병할 경우, 성인 자녀는 부모의 일상생활 보조는 물론 재정 관리와 주요 의료적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되면서 부모에게 보호받던 위치에서 부모를 보호하는 역할 전도(role reversal)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급작스럽고도 비가역적인 역할 전환은 중년기 자녀에게 상당한 심리적 긴장과 가족 내 관계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다(강영미, 2020; 권정화, 2025; 조윤숙, 김성환, 2025).

더욱이 치매는 기억력 감퇴에 그치지 않고 판단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점진적 쇠퇴와 함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저하를 동반한다. 질환의 진행에 따라 동반되는 망상, 배회, 공격성, 우울 등의 행동심리증상(BPSD)은 가족돌봄자의 신체적

www.kci.go.kr

피로와 정서적 디스트레스(distress)를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치매 돌봄은 단순한 물리적 수발 노동을 넘어, 점차 낯설게 변화해 가는 부모의 성격과 행동 양식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고도의 정서적 소진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보경, 2016; Cerejeira, Lagarto, & Mukaetova-Ladinska, 2012; Taylor, 2023).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질적으로 재편되며, 돌봄자는 돌봄 지속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만성적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Brodaty & Donkin, 2009).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모 부양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가족주의적 책임과 효(孝) 규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강영미, 2020; 고선강, 2012). 효의식은 장기적인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내적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돌봄 서비스나 시설 입소를 기피하게 하고 돌봄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하여,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게 하기도 한다. 돌봄이 장기화될수록 자녀는 부모를 향한 애착 및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일상이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 분노, 무기력, 벗어나고 싶은 충동 등 극심한 심리적 양가감정(ambivalence)을 겪게 된다(박준희, 2026).

이러한 돌봄 역동은 특히 중년 남성 돌봄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 긴장(role strain)으로 표출될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중년 남성은 여전히 가계의 주 부양자로서 경제적 책임과 직업적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는다(김영하, 2021). 치매 부모 간병이 본격화될 때 남성 돌봄자는 직업 활동과 간병 노동 사이에서 시간 빈곤(time poverty)과 역할 과부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돌봄이 역사적·관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사회적 통념 속에서, 남성 돌봄자는 돌봄 기술의 미숙함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취약성을 외부에 토로하거나 공식적 지지체계를 요청하는 데 상대적 단절과 수치심을 경험하기 쉽다(박준희, 2026). 즉, 중년 남성의 치매 부모 돌봄은 단순한 간병 부담의 차원을 넘어 직업적 지속성,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성역할 고정관념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실존적 위기로 고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중년기 치매 부모 돌봄을 발달 과업의 과부하, 만성적 간병 스트레스, 문화적 부양 규범이 얽혀 있는 복합적 생애사적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인지적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점진적 와해는 부모의 생존 시기부터 이미 지속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만들며, 이는 훗날 부모의 사망 이후 직면하게 되는 사별과 애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행 경험으로 작용한다(Boss, 2006, 2023; Nathanson & Rogers, 2020).

2) 치매 부모 상실과 의미 재구성

www.kci.go.kr

치매 돌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상실은 대상과 시점이 분명한 일반적인 사별과 다르다. Boss(2006, 2023)는 이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실을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로 명명하였는데, 치매는 부모가 신체적으로는 존재하나 심리적으로는 부재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녀는 부모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동시에 마주하며, 부모의 생존을 바라면서도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양가감정과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조윤숙, 김성환, 2025). 이러한 상실은 진단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사전 애도(pre-death grief)로 이어지며(Lindauer & Harvath, 2014; Meuser & Marwit, 2001), 사별 후에도 즉시 해소되지 않고 복합적인 애도로 지속될 수 있다(Nathanson & Rogers, 2020). 따라서 치매 부모를 장기간 돌본 자녀의 상실은 사망이라는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돌봄 과정의 만성적 상실과 사별 이후의 애도를 하나의 연속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삶과 관계,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 사건이며, 특히 전 생애에 걸쳐 안전 기지이자 핵심 애착대상인 부모의 사별은 내면의 관계 구조와 삶의 의미체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공수연, 양성은, 2011; 김수지, 강연정, 2026). 현대 애도 이론은 사별을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고인과의 지속적 유대(continuing bonds)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며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Klass, Silverman, & Nickman, 1996; Stroebe & Schut, 1999). Neimeyer(2001)는 애도를 상실로 무너진 삶의 서사와 자기이해, 세계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통합하는 의미재구성(meaning reconstruction)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에게 남아 있던 신앙적 흔적은 자녀가 상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3) 성경적 인간 이해와 기독교상담의 관점

앞에서 살펴본 모호한 상실, 애도와 의미재구성에 관한 이론들은 치매 돌봄과 사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관계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니는 의미와 돌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 고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이론을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설명의 도구로 활용하되, 성경적 인간 이해와 기독교상담의 관점을 그 경험의 의미를 평가하고 돌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해석의 틀로 삼는다(김준, 2021; Powlison, 2009).

이러한 치매 돌봄과 사별의 역동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인지능력에 국한하지 않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중요한 이론적 준거를 제공한다. 치매를 인지적 결

www.kci.go.kr

손이나 자아 소멸로 환원하는 세속적 관점과 달리, 기독교 전통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규정한다(김규보, 2020; Keck, 1996; Mast, 2017; Powlison, 2009; Swinton, 2012). 이는 치매의 인간성 중심 돌봄(person-centred care)이나 자아 정체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으며(Kitwood, 1997; Sabat, 2001), 치매 환자를 기능 저하자나 치료 대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적·관계적 주체로 조망하게 한다. 따라서 치매 부모의 기억과 언어 기능이 쇠퇴하더라도 그것이 존재 자체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환자는 여전히 하나님 및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영적 존재로 설명된다(김영희, 2010; 최주혜, 2021). 성경은 인간의 존엄이 기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에 근거함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창 1:27), 모태에서부터 그 존재를 지으시고 아신다(시 139:13-16). 또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는 말씀은, 치매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 안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 준다. 실천신학자 John Swinton(2012)이 치매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의 기억 안에 사는 존재'로 이해한 것도 이러한 성경적 인간 이해와 맞닿아 있다.

성경적 인간 이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는 동시에, 타락한 세상 안에서 질병과 죽음, 연약함과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존재로 본다(Powlison, 2009). 치매로 인한 인지와 인격의 변화도, 오랜 돌봄으로 인한 돌봄자의 소진과 무너짐도 이러한 깨어진 세상의 현실 안에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깨어짐이 인간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님을 증언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기능의 보존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매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모도, 돌봄의 무게에 지쳐 무너진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며,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롬 8:39)는 존재로 이해된다(Keck, 1996; Swinton, 2012).

이러한 인간 이해는 잔존영성(retained spirituality)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잔존영성은 인지적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이후에도 생애 전반을 통해 체화된 신앙적 정체성과 영적 감각, 관계적 연결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이다(MacKinlay, 2012; Swinton, 2012). 선행연구들은 중증 치매 환자가 언어적 반응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기도, 찬송, 성례전과 같은 익숙한 신앙 의식에 반응함을 보고하고 있으며(Britt et al., 2023; Hawkes & Taylor, 2024), 국내 학계에서도 치매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표현과 영적 소통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김영희,

www.kci.go.kr

2010; 최주혜, 2021). 이는 신앙이 단순한 지적 기억이나 인지 정보가 아니라, 신체와 정서에 아로새겨진 체화된 정체성(embodied identity)임을 시사한다(Dunlop, 2020; McFadden, Ingram, & Baldauf, 2001). 결국 잔존영성은 환자 개인의 영적 보존을 설명할 뿐 아니라, 돌봄 자녀로 하여금 변화된 부모 안에서 신앙과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와의 유대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영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치매 부모에 대한 장기 돌봄은 신체·심리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관계적·영적 기반을 흔드는 총체적 위기로 이해된다. 가족돌봄자는 만성적 소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신정론적 회의,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상담 연구자들은 고난에 성급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형화된 교리를 주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사별자에게 이차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김규보, 2020, 2022; 윤득형, 2017, 2018). 이러한 기독교 전통의 탄식(Lament) 연구는 욥의 호소(욥 3장)나 시편의 탄식시(시 13:1-2; 88편)처럼 분노, 죄책감, 안도감과 같은 모호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고 수용하는 애도 공간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의 애도는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간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요 11:35)는 상실의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될 것이 아님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관계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살전 4:13)는다. 이러한 복음의 관점은 고통에 성급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고통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안경승, 2025).

이 점에서 기독교적 의미재구성은 신앙적 기억을 긍정적 정서나 대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신앙을 개인의 적응을 돕는 기능으로 보는 관점과 구별된다(김규보, 2022). 그것은 실패와 원망, 무너짐까지 포함한 자신의 이야기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다시 읽는 일이다. 그 의미의 근거는 개인의 해석 능력이 아니라 상실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에 탄식과 소망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별자의 경험을 인지·정서·동기·행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인적 차원에서 이해한다(김준, 2021; Powlison, 2009). 기독교상담은 사별자의 고통을 임의로 규정하거나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개입보다는, 상실의 실존적

www.kci.go.kr

경험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는 상실의 현실을 서둘러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며 동행하는 성육신적 태도를 취한다(김규보, 2022; 김신구, 2025; 안경승, 2014, 2025).

나아가 기독교상담적 접근은 개인 내적인 상담을 넘어 신앙공동체의 관계적 돌봄 체계로 확장되어 논의된다(김준, 2008; Dunlop, 2020; Mast, 2017). 기억을 상실한 치매 환자에게 교회는 그의 신앙 여정과 존재 가치를 증언해 주는 '기억의 대리자(surrogate memory)'이자 '기억의 공동체(community of memory)'로 기능하며(Swinton, 2012, 2014), 사별 유가족에게는 고통과 질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주는 심리적 '담지 공간(holding space)' 역할을 수행한다(이창규, 2017; 황윤하 외, 2023). 이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는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고전 12:26)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다. 이는 개인의 상실 이야기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이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서사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상담적 기반이 될 수 있다(김미경, 2015; 김신구, 2025; 하재성, 2020).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치매 부모의 돌봄과 사별 경험을 단순한 비탄 반응에 국한하지 않고, 상실에 대한 솔직한 탄식과 더불어 고인과의 관계적·영적 흔적을 재해석해 가는 전인적 의미재구성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별자가 고통 속에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부모가 남긴 신앙적 유산을 자신의 삶에 통합해 가도록 돕는 이론적·실천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치매 부모를 장기 간병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이 사별 후 회복 경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Stake(1995)의 본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일반화보다 사례 자체의 독특성과 복합성,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10년 이상 치매 모친을 주 돌봄자로 간병하고 사별한 중년 남성 기독교인으로, 장기 돌봄과 사별, 이후의 회복이 하나의 연속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www.kci.go.kr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8회기에 걸쳐 회기당 60분씩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모친과 사별한 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별 직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 종단적 자료가 아니라, 참여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돌봄과 사별 경험, 그리고 사별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술한 회고적 자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회복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기보다는, 참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한 경험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와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전화 통화와 전자메일을 실시하였으며, 관찰메모와 연구자의 성찰일지, 참여자가 제공한 과거 사진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ke(1995)가 제시한 직접 해석(direct Interpretation)과 범주적 통합(categorical aggregation)의 원리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인터뷰 녹취록과 관찰 일지 등 수집된 자료 전체를 반복 정독하며 사례의 고유한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에 몰입하였다. 둘째,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뒤, 빈도에 의존하기보다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사례의 본질을 관통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직접 해석을 통해 초기 코딩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사한 성격의 코드들을 유목화하는 범주적 통합을 통해 하위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넷째, 통합된 범주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핵심 주제(Issue)를 도출하고 현상의 의미를 구조화하여 사례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서술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일치 여부를 검증받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거쳤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는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참여자의 경험을 특정 틀로 왜곡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성찰 일지(reflexive journal)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유지하였다. 연구 윤리 측면에서는 면담 전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상세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모든 수집 자료는 익명화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였고, 자발적 참여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였다.

www.kci.go.kr

4) 사례 소개

연구의 참여자 A는 50대 후반의 남성 기독교인으로, 10년 이상 치매 모친을 주 돌봄자로서 간병하였다. 2남 1녀 중 막내인 A는 부모와 가까이 지내며 모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모친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모친의 증상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공격성과 반복적인 배회로 나타났으며, A는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떨어져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모친의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A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한편, 수시로 배회하는 모친을 찾고 돌보는 일을 혼자 감당하였다. 가족들이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일상적인 돌봄의 대부분은 A의 몫이었다. 부친의 사망 이후 모친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모친의 사망 이후 A는 경제적 기반과 부부관계를 잃고 찜질방과 창고 등을 전전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장기간의 돌봄과 누적된 스트레스는 알코올 의존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졌다.

돌봄 기간 요양보호사의 권유로 모친과 함께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A는, 사별 후 절망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붙들어 준 한 집사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하였다. 이후 청소 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누나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현재 A는 거처를 옮긴 뒤에도 새로 정착한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Stake(1995)의 직접 해석과 범주적 통합의 원리에 따라 사례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3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일상의 잠식과 실존적 붕괴	파괴적 증상과의 사투
	사회·경제적 자아의 상실
	신체적·심리적 파국
관계의 해체와 돌봄의 실천	가족 지지망의 해체

www.kci.go.kr

	돌봄의 지속과 가족의 기억
	사별의 도래와 애도의 양가성
회복의 자원과 삶의 재구성	신앙의 회귀와 공동체의 지지
	경제적 자립과 건강의 회복
	관계의 복원과 평온

1) 일상의 잠식과 실존적 붕괴

(1) 파괴적 증상과의 사투: '빠삐용 모친'과 트럭 간병

모친의 치매 증상이 밤낮 없는 배회와 가출 등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악화되면서 참여자는 극심한 긴장과 불안을 경험했고, 끊임없이 집을 벗어나려는 모친의 모습을 '빠삐용 모친'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돌봄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과 절박함을 보여준다.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던 참여자는 배회하는 모친을 위해 트럭 간병을 선택했고, 트럭은 생계 수단이자 모친을 보호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모친의 돌발 행동과 감정적 폭발, 신체적 폭력을 감당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차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돌봄에만 매몰되는 고립된 삶으로 내몰렸다.

> "비 오는 날 못 나가게 하니까 보따리를 싼 거예요. 그게 큰 병이에요.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비를 맞고 나가야만 했어요. 우산을 씌워주고 저는 다 비를 맞으면서 따라다녔어요. 빠삐용이에요. 무조건 탈출이에요. 진짜 영원한 탈출이에요. 끝이 없는 탈출. 빠삐용도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따뜻한 밥 무조건 드셔야 돼. 차가운 밥 절대 안 드시니까... 엄마 가자. 손잡고 엄마 가자. 트럭 옆 자리에 태우고 일하는 거죠. 매일 일상이."

> "우리 엄마는 팔뚝이 나의 두 배예요. 힘이 엄청나요. 치매가 오면 힘이 더 나나 봐요. 와, 무슨 여장사예요. 어렸을 때 나를 한 대도 안 때린 사람인데 화가 나면 자제를 못 하고 내 귓방망이를 사정없이 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딱 제정신 돌아오면 미친년이 아들을 막 때렸다고, 자기가 미친년이라고 막 울어요. 그리고 막

www.kci.go.kr

> 자기 혼자서 자책하면서 울고 난리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아닌 거에요. 그런데 그게 매일 같이 반복이에요”

(2) 사회·경제적 자아의 상실: 고물상 운영과 빈곤의 악순환

모친의 치매 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참여자는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연고가 전혀 없는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치매 환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 참여자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 홀로 부모를 모신 채 고물상에 딸린 창고방에서 생활하였다.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 공간에서 참여자는 정체성을 잃고 오로지 생존과 돌봄에만 매몰되었다. 특히 주말마다 가족들이 내려와 일을 거들어야 했던 상황은 참여자 한 사람의 고난이 가족 전체의 희생으로 번져갔음을 보여준다.

> “아내랑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부모님 모시고 외곽으로 왔어요. 고물상을 하려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식구랑 같이 살수가 없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따로 없어. 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애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어요. 제일 예민한 때인데... 못할 짓 많이 시켰죠.”

모친의 돌발 행동과 상시적인 배회는 참여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였다. 일을 하다가도 모친을 찾으러 나가야 했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결국 사업의 실패와 부채 누적으로 이어졌다. 부친 사후 고물상을 정리한 참여자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 상태와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참여자는 당시의 심정을 “거지같이 살았다”거나 “10원 하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중년 남성으로서 가졌던 가장의 권위와 사회적 유능감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지점이다.

> “엄마 때문에 고물상 10원도 하나 없이 나왔어요. 거기서 돈 투자한 것도 못 건지고 그냥 빚만 지고 나왔어요.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고물상 처분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

www.kci.go.kr

> 예요. 그래서 노가다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새우깡에 소주 먹으면서 연명했어요. 그러다 창고방을 얻어서 라꾸라꾸 침대 놓고 살았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고였죠. 거지같이 살았죠."

(3) 신체적·심리적 파국: 알코올 의존과 '요단강 체험'

장기간 지속된 극한의 간병과 경제적 압박, 출구 없는 고통 속에서 참여자 A는 유일한 도피처로 술을 선택하였다. 고물상 일과 간병을 홀로 감당하며 밤마다 소주를 마시던 생활은 점차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심화되었는데, 결국 모친의 장례 직후 참여자는 폐수종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참여자는 사경을 헤맸던 당시의 붕괴를 "요단강 체험"으로 회상하였다.

> "저녁에 고물상에 돌아와서 저녁 차려드리고 트럭에서 물건 다 내리고 나면 진이 쫙 빠져.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녁 먹기 싫어서 소주2병, 막걸리2병 매일같이 울면서 먹어.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그러지. 거지같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깡소주를 또 먹은 거예요. 신세가 너무 하잖아요. 돈도 못 벌고 맨날 새우깡에 소주만 갖다 푼 거죠. 그러니까 신장이 아웃된 거예요. 그 전부터 안 좋았던 게 스트레스로 아웃된 거예요."

>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더니 기절을 해버렸어요. 직원이 119를 불렀고,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대요. 그때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상태였죠. 붕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단강이 보였는데, 안개가 걷히듯이 싹 걷히면서 여자 둘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게 딸이랑 아내였대요. 그 안개가 안 걷혔으면 저는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2) 관계의 해체와 돌봄의 실천

(1) 가족 지지망의 해체: 형제들의 방관과 이혼

참여자는 2남 1녀 중 막내였으나, 실질적인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물리적·경제적 지원을 회피하였으며, 이는 참여자에게

www.kci.go.kr

씻을 수 없는 정서적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참여자는 형제들의 돌봄 참여와 경제적 지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3천만 원의 배신'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Stake의 사례연구에서 강조하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경험한 경제적 부담과 형제 관계에서의 상실감이 집약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형이 어느 날 갑자기 3천만 원만 주면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줬어요. 형도 자식노릇 해야 할 거 아니냐 싶어서요. 나만 아들이 아니니까요. 며칠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줬던 3천만 원은 꽁무니 없이 입 싹 닦아버리고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참여자의 아내는 오랜 시간 시부모 봉양과 고물상 노동에 동원되며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참여자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주거와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부부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었다. 참여자의 이혼은 단순한 부부 갈등의 결과라기보다, 장기간 지속된 돌봄의 과부하가 가족 체계를 붕괴시킨 구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돌봄이 개인에게만 집중될 때, 그 실천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관계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내 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형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고모들, 그 사람들 오면 밤새도록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1년이면 대여섯 번씩 그 뒤치다꺼리를 혼자 다 했거든요. 결국 신장이식 수술하기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고생 많았죠. 그런 상황에 이혼이 당연한 거지."

(2) 돌봄의 지속과 가족의 기억: '3쪽 치킨' 속에 담긴 마음

참여자는 고물상 일로 낮 동안 모친을 트럭에 태우고 다니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였다. 저녁이 되면 본인의 끼니를 직접 차려 먹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종종 동네 치킨을 사와 허기를 달래곤 했다. 그러나 참여자는 자신이 먹기 전, 반드시 부친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먹기 좋은 부위로 '3쪽의 치킨'을 먼저 떼어놓았다. 이것은 극심한 신체적·정서적 소진 속에서도 부모의 식사를 먼저 챙기고

www.kci.go.kr

돌봄을 지속했던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석된다.

> “낮에 어머니 모시고 트럭 타며 고물 줍고 나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내 밥 차려 먹을 힘도 없어서 저녁마다 치킨 반 마리 사 와서 아버지 드릴 거 세 쪽을 먼저 따로 챙겨놨어요. 다음날 일어나보면 항상 아버지가 그걸 다 드셨더라고요.”

참여자는 장기간의 간병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돌보는 일을 지속하였다. 주말마다 고물상에 내려와 차 뒤에서 일을 돕고, 할머니가 집을 나서면 뒤를 쫓아가며 돌봄에 함께했던 자녀들의 경험은 참여자의 돌봄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들은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사별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돌봄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 구성원 간의 경험과 관계가 사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우리 애들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애들 다 와야 했어요. 박스 모으고, 다음 날 아침에는 캔하고 알루미늄 구분하고, 병은 병대로 쓰는 병 못 쓰는 병 또 구분해야 했죠. 추운 날 방학 때 와서 깡깡 얼어가면서 차 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할머니가 나가려고 하면 애들이 뒤따라가서 지켜보고, 할머니한테 욕먹으면서 길거리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신기한 건, 그런데도 애들이 지금 저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지요.”

(3) 사별의 도래와 애도의 양가성: 마지막 열흘과 ‘차라리 잘됐다’는 안도

참여자의 모친은 생의 마지막을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냈다. 참여자는 간호 인력에게 과일과 고기를 사다 드리며 모친을 부탁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30여 년 전 이웃으로 깊은 인연이 있던 이를 간호사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모친을 알아보고 끌어안고 울었으며, 마지막 열흘 동안 모친을 각별히 돌보았다. 한편 참여자는

www.kci.go.kr

호흡이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친을 찾아갈 때마다 하루 종일 울다 돌아왔고,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슬픔과 함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를 경험하였다.

>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그분이 엄마를 알아보시고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일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신 거예요."
> "마지막 한 달 넘게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니까, 갈 때마다 하루 종일 울다가 눈이 부어서 돌아왔어요. 막상 돌아가시니 편안하게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잘됐다고 느꼈어요."

3) 회복의 자원과 삶의 재구성

(1) 신앙의 회귀와 공동체의 지지: 교회로 이끈 손길과 예배 안의 어머니

참여자는 모친의 삶에 남아 있던 신앙의 흔적을 다시 기억하면서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무속 신앙에 심취했던 모친이 40세 무렵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이후 줄곧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그 과정에서 안정을 찾고 아티반을 중단했던 경험은 참여자에게 기적 같은 강한 영적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치매가 심해진 이후에도 예배 시간에는 평온함을 유지했던 모친의 모습은 참여자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드는 힘이 되었다.

>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년을 먹었던 아티반(신경안정제)을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끊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경험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할 때도 교회만 가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좋아하는 찬송가. 그런 거 막 나오면 막 또 따라 불러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들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걸 아는가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끝나고 꼭 점심을 먹고 왔어요. 엄마랑 같이. 그런데 그 희한한데 딴 데 가면은 무조건 가자고 그럽니다. 오래 안 있어요. 밥 먹으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2시간 동안은 어디 가자는 소리 안 해요. 교회에서는."

> "나중에 또 치매가 많이 심할 때도 … 예배는 다 드려요. 화내고 그

www.kci.go.kr

런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화내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참여자가 교회와 다시 연결된 것은 한 사람의 구체적인 돌봄을 통해서였다. 고물상에서 부모를 모시던 시기, 하루 여섯 시간씩 부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근처의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모친을 자기 집에까지 데려가 목욕을 시켜 줄 만큼 정성껏 돌보았고, 참여자에게 교회에 나와 점심을 먹고 가라고 권하였다. 참여자는 그 고마움 때문에 그를 따라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 "○○ 고물상에서 지낼 때 엄마 아버지를 6시간씩 와서 돌봐준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있었어요. 너무 착한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바로 우리 고물상 뒤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아줌마가 나보고 '사장님 교회 나와서 점심 먹고 가요'라고 했어요. …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목욕까지 다 시켜주셨거든요. … 정말 고마운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아줌마 따라서 교회에 다시 다니게 된 거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참여자는 교회와 예배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고 위안과 평온을 얻은 곳으로 회상하였다. 또한 모친의 사별 이후 고물상을 정리하고 경제적 기반을 잃은 채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끈 것은 거듭 찾아와 붙들어 준 한 집사였다. 이러한 만남은 그가 관계적 고립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붙드는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었다.

> "엄마 때문에도 교회를 많이 갔어요. … 많이 위안이 됐죠. 편안했죠. 믿을 거는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 나를 도와줄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 용기도 많이 주고. 나 혼자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랬죠. 혼자서 예배드리고 엄마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 시간은 그냥 평온했어요."
>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물상도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죽고 싶을 때마다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찾아오고 붙들어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결국 내가 교회를 향하더라고요."

www.kci.go.kr

사별 후 참여자가 붙든 신앙은 모친의 마지막에 대한 기억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모친을 끝까지 돌보셨다고 고백하였고, 이것은 사별 이후 그에게 가장 큰 위로로 남아 있었다.

>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도 복을 받은 거 같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던 거예요. 요양원에서 내가 곁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돌봐주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2) 경제적 자립과 건강의 회복: 청소 노동과 신장 이식

참여자의 회복은 구체적인 일상의 자립으로 이어졌다. 찜질방과 창고방을 전전하던 극빈의 상태에서 시작한 청소 노동은 참여자에게 경제적 자립 이상의 의미였다. 또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롭던 참여자는 누나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건강을 극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 "용케 청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나마 청소 일이 저를 살린 거죠. 처음에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요령도 생겼죠. 투석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안 하면 못 사니까. 온 몸이 터져요. 노폐물이 쌓여서 터져서 죽어요. 투석한지 3개월 만에 누나 신장을 이식 했어요. 다시 주어진 생명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죠."

(3) 관계의 복원과 평온: 자녀와의 유대와 심리적 안녕

참여자의 회복은 개인의 자립을 넘어, 간병 기간 파편화되었던 가족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긴 간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있었으나, 자녀들은 조부모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을 보며 깊은 존경과 신뢰를 키워갔다. 이후 참여자는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을 지원하며 부모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자녀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한 참여자는 과거의 고통을 지나 늦게 찾아온 평화와 경제적 안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경험하였다.

>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힘들었지만, 애들이 안정이 되

www.kci.go.kr

> 고 직장을 가지니까 내가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두 놈이 취직을 바로 해서 이제 애들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거꾸로 애들이 내 생일 때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와, 이게 뭐지? 싶어요. 맨날 주기만 하다가 받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진짜 우리 아들 딸 그냥 시집 장가만 보내면 저는 진짜 이제 목표 달성한 것 같아요."

4. 치매 부모 장기 간병과 사별 후 회복경험에 관한 기독교상담적 논의

본 연구는 치매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고 사별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이 사별 후 회복에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 세부질문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상담적 돌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돌봄으로 인한 총체적 고난과 관계·정체성의 상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간병 경험은 일상과 경제적 기반, 가족관계, 신체적·심리적 건강이 함께 흔들리는 총체적인 경험이었다. 이는 치매 가족돌봄이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Brodaty & Donkin, 2009; Cerejeira, Lagarto, & Mukaetova-Ladinska, 2012; Taylor,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부담이 중년 남성으로서 유지해 온 사회적 역할과 자기 정체성의 붕괴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참여자는 부모 돌봄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를 먼저 챙겼지만, 그 과정에서 생업과 가족과의 생활을 잃었다. 효의식은 장기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지만 돌봄자의 자원이 고갈될 때 사랑과 책임, 분노와 원망, 죄책감이 교차하는 양가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강영미, 2020; 고선강, 2012; 박준희, 2026), 참여자의 경험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과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관계의 해체는 치매 돌봄의 고통이 돌봄자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체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형제들의 돌봄 회피와 경제적 갈등을 경험하였고, 장기간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부부관계의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치매 돌봄에서 가족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이 돌봄자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Brodaty

www.kci.go.kr

& Donkin, 2009)와 연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단순히 해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조부모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계적 의미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자녀들은 장기간의 돌봄 과정에서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오히려 아버지를 지지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치매 돌봄은 가족관계를 약화시키는 경험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에게 부모의 돌봄과 책임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관계적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가 경험한 경제적 붕괴와 관계적 상실, 신체적 질병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전인적 존재로서 그의 삶 전체를 흔든 경험이었다. 극심한 돌봄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라고 탄식한 것은 돌봄의 고난이 그의 신앙과 의미체계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 부모를 돌보는 기독교인의 고난을 신앙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상담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참여자의 경험에서 고난은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경제적 파탄과 가족관계의 해체, 과도한 음주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고난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나 성숙의 기회로 설명하기보다, 먼저 고통의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애통과 탄식의 과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김규보, 2022; 윤득형, 2017). 특히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거지같이 살았다”고 표현하고,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했던 것은 그의 경험을 성급하게 신앙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고통의 깊이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시 13:1)라고 부르짖었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담아낸다. 참여자의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라는 고백 역시 하나님을 떠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에서 고난의 의미를 서둘러 규정하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말하고 탄식하도록 돕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모호한 상실과 부모의 잔존영성

본 연구는 참여자의 치매 돌봄 경험을 모호한 상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기독

www.kci.go.kr

교상담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참여자에게 손을 댄 적 없던 모친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반복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은 신체적으로는 생존해 있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적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모를 경험하는 일이었다. 이는 치매 가족돌봄자가 부모의 신체적 현존과 심리적·관계적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며, 사망 이전부터 애도와 상실을 경험한다는 모호한 상실의 관점과 연결된다(Boss, 2006, 2023; Meuser & Marwit, 2001; Nathanson & Rogers, 2020). 참여자는 모친의 인지기능과 관계적 기능이 점차 변화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살아 있음에도 이전의 어머니를 잃어가는 듯한 슬픔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사망 이전부터 시작된 사전 애도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임종을 앞둔 모친을 찾아갈 때마다 “하루 종일 울다가 눈이 부어서 돌아왔다”고 회상하였으며,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차라리 잘됐다”는 안도를 느꼈다. 이러한 안도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고통의 끝을 바라보는 양가적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조윤숙, 김성환, 2025),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이 감정을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모친과의 관계 변화와 장기간의 돌봄, 그리고 사별 이후까지 이어진 정서적 경험은 모호한 상실이 질병 과정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사별 이후의 애도와 삶의 경험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매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를 잃어가는 경험’과 사별 이후의 슬픔을 서로 분리된 경험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연속적인 상실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모친과의 관계는 상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참여자는 치매가 심해진 모친이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사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앙적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도 오랜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신앙적 정체성과 영적 반응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잔존영성(retained spirituality)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인지적 대화가 어려워진 이후에도 익숙한 찬송과 예배에 반응하고, 특정한 신앙적 환경에서 평온함을 보였던 모친의 모습은 신앙이 단순히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인지적 지식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MacKinlay & Trevitt, 2015; Mast, 2017; Swinton, 2012, 2014). 참여자는 이러한 모친의 모습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견디고 신앙을 다시 붙드는 중요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치매 환자를 인지능력의 감소에 따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인지기능의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는 관계적·영적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기독교적 인간관과도 연결된다(Keck, 1996;

www.kci.go.kr

Mast, 2017; Swinton, 2012).

이러한 인간 이해는 모친이 신앙적 반응을 보이던 순간뿐 아니라 공격성을 보이던 순간에도 적용된다. 참여자를 한 번도 때린 적 없던 모친이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아들을 때린 뒤, 제정신이 돌아오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었다는 진술은, 질병이 인격의 표현을 흔들어 놓았음에도 그 안에 아들을 향한 사랑과 양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친을 "붙잡고" 안아 주었던 참여자의 반응은, 변해 버린 모친을 증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어머니로 대한 실천이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는 기능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관점은 소진되어 술에 기대고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라며 울던 참여자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돌봄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힌 연약한 피조물이었으며, 그 무너짐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리였다(롬 8:39). 또한 참여자는 다른 곳에서는 잠시도 머물지 못하던 모친이 예배 시간에는 화내지 않고 끝까지 앉아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모친을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교회는 가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라는 그의 말은, 증상 너머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신앙을 알아본 시선을 보여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부모에게 나타난 잔존영성의 흔적이 자녀의 기억 속에 지속되면서, 사별 이후 의미재구성의 과정에서 영적 자원으로 기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참여자는 모친이 교회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찬송을 부르던 경험을 사별 이후에도 기억하고 있었으며, "엄마 때문에도 교회를 많이 갔어요"라고 회상하며 모친을 교회에 나간 이유의 하나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부모에게 남아 있는 신앙의 흔적이 자녀에게 단순한 추억을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신앙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친이 과거 무속 신앙에 심취했으나 교회에 출석하면서 안정되고, 치매가 심해진 이후에도 교회에서 찬송과 예배에 반응했던 경험은 참여자에게 고난 속에서도 남아 있는 믿음의 기억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이 기억의 의미는 위로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무속에 의지하던 모친이 교회에서 안정을 찾고, 기억을 잃어 가면서도 예배 안에서 평온했던 모습은 참여자에게 어머니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억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참여자가 자신의 고난 역시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잔존영성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인 치매 부모의 영적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 가족돌봄자가 부모에

www.kci.go.kr

게서 경험한 신앙적 흔적을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의미재구성과 사별 후 회복

참여자의 회복 과정은 돌봄과 사별의 경험을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해 가는 변화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실패와 상실의 경험으로 인식했던 참여자는 사별 이후 경제적 자립을 회복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부모를 돌보았던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할머니를 돌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여자의 돌봄 경험이 단순히 고난의 기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실로 인해 변화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의미재구성의 과정이며(Neimeyer, 2001),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신앙,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게 실천했던 돌봄의 의미를 현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죽음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신앙, 가치와 삶의 태도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유대(continuing bonds)의 관점과도 연결된다(Klass, Silverman, & Nickman, 1996). 따라서 참여자에게 사별 이후의 회복은 과거의 돌봄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남겨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게 실천했던 사랑의 의미를 가족의 기억과 현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돌봄 기간 그의 신앙은 술에 기대어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라고 우는 원망과 탄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모친의 임종을 회상하며 그는 “요양원에서 내가 곁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돌봐주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라고 고백하였다. 참여자는 낯선 요양병원에서 오래전 인연이 있던 이를 만나 모친이 마지막 열흘을 돌봄받은 일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위로를 받은 경험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너무합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분으로 고백하게 된 의미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재구성의 근거가 된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드려진 말이었으며, 그 관계가 사별 이후 삶을 다시 해석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다만 참여자는 이를 모친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받은 복으로도 표현하였다. 기

www.kci.go.kr

독교상담자는 이러한 고백을 존중하되, 그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연약한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담자가 발견하도록 동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회복을 신앙적 기억과 공동체의 지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참여자의 삶에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돌봄 부담의 종료, 청소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누나의 신장 기증과 건강의 회복, 자녀들의 취업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회공동체와 신앙으로의 회귀가 함께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친의 신앙적 흔적과 교회공동체는 회복을 일으킨 원인이라기보다, 참여자가 이러한 변화를 견디고 해석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운 영적·관계적 자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회복 과정은 기독교상담에서 관계적·공동체적 돌봄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장기간의 돌봄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었으며, 사별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붕괴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한 고립 속에서 참여자를 교회로 이끈 것은 모친을 돌보던 요양보호사였다. 그는 모친을 자기 집에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참여자에게 “교회 나와서 점심 먹고 가요”라고 권하였으며, 작은 교회는 치매가 깊은 모친과 아들을 예배와 식탁의 자리에 받아들였다. “도와줄 가족은 단 한 명도 없”던 참여자에게 이 한 사람의 돌봄과 교회의 환대는 고립 속에서 만난 공동체의 구체적인 얼굴이었다. 사별 후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을 때마다” 그를 “찾아오고 붙들어” 준 한 집사의 발걸음 역시 같은 모습이었다. 공동체는 그의 절망을 서둘러 해석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곁에 머무는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공동체의 지지가 제도나 프로그램보다 먼저 한 사람의 구체적인 돌봄과 초대를 통해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눅 15:4)처럼 흩어진 한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의 돌봄이 지닌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와의 연결은 사별 이후에도 이어져, 참여자는 거처를 옮긴 뒤에도 새로 정착한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교회에서 경험한 예배와 찬송, 그리고 신앙공동체와의 관계는 참여자에게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후 청소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건강의 회복,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이어지는 시기에 참여자가 고립감을 덜고 삶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지지한 관계적·신앙적 자원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통받는 사람의 현실에 함께 머무르며 동행하는 성육신적 돌봄의 필요성과 연결된다(김규보, 2020; 김신구, 2025; 김준, 2021). 또한 사별자의 고통을 성급하게 교정하거나 설명하기보다 안전하게 수용하고 관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안경승, 2026; 황윤하 외, 2023). 개인의 상실 이야기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다

www.kci.go.kr

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과정은 목회적 돌봄의 중요한 방향이며(김미경, 2015; 하재성, 2020), 본 연구의 참여자가 교회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관계를 회복해 간 과정은 관계적·공동체적 돌봄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치매 부모 간병과 사별 이후 회복은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난과 여러 삶의 변화 가운데, 부모에게 남아 있던 신앙적 기억과 공동체의 지지를 자원 삼아 그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치매 가족돌봄자의 고통을 단순히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적 상실과 영적 갈등, 신앙적 기억과 의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 부모를 사별한 중년기 기독교인의 회복은 상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한 돌봄의 시간과 고난, 사별의 경험, 부모에게서 남겨진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 가족돌봄과 사별에 대한 기독교상담이 심리적 회복과 함께 인간의 존엄, 영성, 관계, 고난의 의미 및 공동체적 돌봄을 함께 고려하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닫는 글

본 연구는 치매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을 탐색하고, 사별 후 회복 경험에서 발견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는 치매 부모를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경제적·관계적 어려움과 정서적 소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부모의 인지 및 관계적 기능 쇠퇴로 인해 사망 이전부터 지속되는 모호한 상실을 마주하였다. 특히 중년 남성으로서 생계와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며 간병을 병행해야 했던 현실은 삶과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졌다. 사별 이후에는 간병의 종료와 더불어 지난 고난과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망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참여자가 이야기한 회복은 상실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사별의 경험을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통합해 가는 경험이었다. 특히 부모에게서 경험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남겨진 신앙적 기억은 참여자가 회복의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하게 회상한 영적 자원이었다.

www.kci.go.kr

본 연구는 치매 부모를 장기간 돌보고 사별한 중년 기독교인 남성의 경험을 통해, 치매 돌봄과 사별을 분리된 개별 사건이 아닌 모호한 상실과 사별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상실 경험으로 조명하고, 그 안에서 겪은 고난과 신앙적 갈등, 그리고 부모가 남긴 신앙적 유산이 사별 이후 의미재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모호한 상실과 의미재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에 더하여, 치매가 깊어진 부모에게 남아 있던 신앙의 흔적이 자녀의 기억 속에서 사별 후 삶과 신앙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한 사례의 맥락 안에서 보여 주었다는 점에 이 연구의 고유성이 있다. 나아가 치매 가족돌봄과 사별에 대한 기독교상담이 비탄 감정의 완화를 넘어 관계와 영성, 인간의 존엄과 실존적 의미를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상담과 돌봄적 실천,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에서는 치매 부모의 장기 돌봄과 사별을 분절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부모와의 관계 역사와 돌봄 과정에서의 모호한 상실, 사별 이후의 애도가 연결된 연속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치매 돌봄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변화뿐 아니라 죄책감과 미안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 가족관계의 해체 등 복합적인 고난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경험을 성급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하기보다 내담자가 애통과 탄식, 영적 갈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실과 돌봄의 의미, 사별 이후의 애도를 충분히 탐색하고, 내담자의 신앙적 배경과 영적 자원을 바탕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신앙, 자신이 실천한 돌봄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통합하도록 돕는 전인적 상담이 요구된다.

둘째, 신앙공동체는 치매 가족을 위한 일회적인 지원을 넘어 치매 돌봄의 시작부터 사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관계적 돌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앙공동체의 위로와 수용은 참여자가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신앙과 삶을 붙드는 데 의지가 된 관계적 자원이었다. 따라서 신앙공동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공동체의 주변부로 밀어내기보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기독교상담자, 훈련된 성도들이 협력하여 심방과 상담, 기도와 예배 동행, 돌봄자 소그룹 및 동료 지지모임 등을 제공하고, 임종과 사별 이후에도 애도와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의 돌봄과 사별을 경험한 성도가 자신의 경험을

www.kci.go.kr

다른 돌봄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도움을 제공하는 공동체를 넘어 서로의 삶을 기억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치매 부모의 장기 돌봄과 사별, 그리고 사별 이후 회복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 명의 중년 기독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다양한 치매 가족 돌봄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 가족관계 및 신앙적 배경을 가진 치매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확대하고, 장기 돌봄에서 사별 이후까지의 경험을 종단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호한 상실, 잔존영성, 의미재구성 및 신앙공동체의 지지가 치매 가족 돌봄과 사별 이후 회복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6년 11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1월 11일



√ √ √ √

www.kci.go.kr

【참고문헌】

강영미 (2020).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사별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체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선강 (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6**(2), 103-121.

공수연, 양성은 (2011).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885-896. https://doi.org/10.5934/KJHE.2011.20.5.885

권정화 (2025). 재가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규보 (2020). 트라우마 가족 역동에 대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2), 33-76.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2.33

김규보 (2022). 현대 고통 담론에 대한 성경적 고찰. **복음과 상담, 30**(3), 5-34. http://dx.doi.org/10.17841/jocag.2022.30.3.5

김미경 (2015).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야기 치료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41-68. http://dx.doi.org/10.17841/jocag.2015.23.2.41

김보경 (2016).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지, 강연정 (2026).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복음과 상담, 34**(2), 89-125. https://doi.org/10.17841/jocag.2026.34.2.89

김신구 (2025). 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를 위한 성육신적 접근과 돌봄 전략 연구. **선교신학, 77**, 72-112. https://doi.org/10.14493/ksoms.2025.1.72

김연수 (2021). 사별과 애도, 그리고 회복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신앙과 학문, 26**(4), 225-250.

김영하 (2021).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 (2010).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http://dx.doi.org/10.17841/jocag.2010.14.2

www.kci.go.kr

18

김영희 (2022).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을 나타내는 환자를 조호하는 배우자의 적응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차의과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정 (2018). 중년자녀의 시각을 통해서 본 노부모와 중년자녀 간 교환관계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42**(4), 69-104. https://doi.org/10.46349/kjhss.2018.12.42.4.69

김준 (2008). 교회의 돌봄 사역: Heinz Kohut의 자아심리학과 신약의 제자의 모습을 통한 돌봄 사역자의 자세. **복음과 실천신학, 18**, 9-33.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그리심.

김진화, 정남운 (2023). 부모사별 및 애도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인문사회 21, 14**(2), 2539-2552. https://doi.org/10.22143/HSS21.14.2.175

박준희 (2026). 재가 치매노인가족 주돌봄자가 경험하는 가족갈등과 대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선 (2020). 사별에 관한 이중과정모형과 의미재구성모형의 이해와 적용. **인문사회 21**, **11**(2), 1181-1196. https://doi.org/10.22143/HSS21.11.2.82

서수균, 신현희,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18.

안경승 (2014). 상실로 인한 슬픔 이해하기. **복음과 상담, 22**(2), 9-40. https://doi.org/10.17841/jocag.2014.22.2.9

안경승 (2025). 고통에 답하는 복음 사건의 고찰. **복음과 상담, 33**(1), 43-67. http://dx.doi.org/10.17841/jocag.2025.33.1.43

안경승 (2026). 영혼의 상태와 삶의 방향을 분별하는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34**(1), 111-134. http://dx.doi.org/10.17841/jocag.2026.34.1.111

양준석, 김순경 (2021). 이원과정 모델과 의미재구성 모델을 통합한 애도 프로그램 효과. **인문사회 21**, 12(6), 1065-1080. https://doi.org/10.22143/HSS21.12.6.76

윤득형 (2017). 사별 애도를 위한 영적 돌봄과 의미 만들기 이론: 자녀를 잃은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3**, 411-438. https://doi.org/10.14387/jkspth.2017.53.411

윤득형 (2018).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58**, 417-446. https://doi.org/10.14387/jkspth.2018.58.417

www.kci.go.kr

이창규 (2017).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크리스천 사별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실천, 53,** 305-336. https://doi.org/10.14387/jkspth.2017.53.305

장휘숙 (2012). **전생애 발달심리학** (제4판). 박영사.

전성숙, 조경진 (2017). 치매노인이 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족수발자의 경험. **글로벌 건강과 간호, 7**(1), 42-53. https://doi.org/10.35144/ghn.2017.7.1.42

정경림 (2022). 치매노인과 가족돌봄제공자의 치매과정 경험: 질적메타합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수아 (2023). 치매환자 남성배우자의 자기돌봄 경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윤숙, 김성환 (2025). 치매 어머니를 둔 기독 상담자의 주 돌봄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정서중심심리코칭과 치료, 1**(1), 117-136.

최주혜 (2021). 치매에 대한 사회구성학적 이해를 근거로 한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4,** 533-556. https://doi.org/10.14387/jkspth.2021.74.533

하재성 (2020). 공동체의 정의와 기독교·목회 상담: 내러티브의 회복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2), 163-194.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2.163

황윤하, 김진영, 이소영, 이신혜, 장민진 (2023). 고통을 담아주기: 갑작스러운 사별 경험에 관한 목회 돌봄 연구. **목회와 상담, 41**, 181-218. https://doi.org/10.23905/kspcc.41..202311.007

Boss, P. (2006).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W. W. Norton & Company.

Boss, P. (2023). **모호한 상실** (임재희 역, *Ambiguous loss*). 작가정신. (원전 1999 출판).

Britt, K. C., Boateng, A. C. O., Zhao, H., Ezeokonkwo, F. C., Federwitz, C., & Epps, F. (2023). Spiritual needs of older adults living with dementia: An integrative review. *Healthcare*, *11*(9), 1319. https://doi.org/10.3390/healthcare11091319

Brodaty, H., & Donkin, M. (2009). 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1*(2), 217–228. https://doi.org/10.31887/DCNS.2009.11.2/hbrodaty

www.kci.go.kr

Cerejeira, J., Lagarto, L., & Mukaetova-Ladinska, E. B. (2012).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Frontiers in Neurology, 3,* Article 73. https://doi.org/10.3389/fneur.2012.00073

Crawley, S., Sampson, E. L., Moore, K. J., Kupeli, N., & West, E. (2023). Grief in family carers of people living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5*(9), 477–508. https://doi.org/10.1017/S1041610221002787

Dunlop, J. (2020).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 (장보철 역, *Finding grace in the face of dementia*). 새물결플러스. (원전 2017 출판).

Hawkes, A., & Taylor, L. (2024). Presence and personhood: Investigating Christian chaplaincy care in two residential dementia units. *Religions, 15*(6), 704. https://doi.org/10.3390/rel15060704

Keck, D. (1996). *Forgetting whose we are: Alzheimer's disease and the love of God.* Abingdon Press.

Kitwood, T. M. (1997). *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 Open University Press.

Klass, D., Silverman, P. R., & Nickman, S. L. (Eds.). (1996).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Taylor & Francis.

Lindauer, A., & Harvath, T. A. (2014). Pre-death grief in the context of dementia caregiving: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0*(10), 2196–2207. https://doi.org/10.1111/jan.12411

MacKinlay, E. (2012). Resistance, resilience, and change: The person and dementia.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24*(1–2), 80–92.

MacKinlay, E., & Trevitt, C. (2015). *Facilitating spiritual reminisc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A learning guid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Mast, B. (2017). **내 기억 속의 하나님의 은혜** (황영아 역, *Second forgetting*). 그리심. (원전 2014 출판).

McFadden, S. H., Ingram, M., & Baldauf, C. (2001). Actions, feelings, and values: Foundations of meaning and personhood in dementia. *Journal of Religious Gerontology, 11*(3–4), 159–174. https://doi.org/10.1300/J078v11n03_07

www.kci.go.kr

Meuser, T. M., & Marwit, S. J. (2001). A comprehensive, stage-sensitive model of grief in dementia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41*(5), 658–670. https://doi.org/10.1093/geront/41.5.658

Nathanson, A., & Rogers, M. (2020). When ambiguous loss becomes ambiguous grief: Clinical work with bereaved dementia caregivers. *Health & Social Work, 45*(4), 268–275. https://doi.org/10.1093/hsw/hlaa026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Sabat, S. R. (2001). *The experience of Alzheimer's disease: Life through a tangled veil.* Blackwell Publishers.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https://doi.org/10.1080/074811899201046

Swinton, J. (2012). *Dementia: Living in the memories of God.* Wm. B. Eerdmans Publishing.

Swinton, J. (2014). What the body remembers: Theological reflections on dementia.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26*(2–3), 160–172. https://doi.org/10.1080/15528030.2013.855966

Taylor, K. (2023). **치매: 우리가 직면한 이 질병에 관한 최신 과학** (강병철 역, *Dementia*). 김영사. (원전 2020 출판).

국가지표체계 (2026).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6년 5월 11일 인출.

www.kci.go.kr

【Abstract】

A Case Study of Dementia Care and Post-Bereavement Recovery Experience in a Middle-aged Christian Man

Hwang, Jung Hoe*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 of a middle-aged Christian man who cared for his mother with dementia for over ten years and later lost her, and examines its meaning from a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Eigh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ne participant and analyzed using Stake's intrinsic case study method. Three main categories emerged: "erosion of daily life and existential collapse," "dissolu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practice of care," and "resources fo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life." During long-term caregiving, the participant experienced financial and physical hardship, family breakdown, ambiguous loss, and anticipatory grief. After bereavement, the end of caregiving was accompanied by independence through work and the restoration of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is mother's remaining traces of faith and the support of the church community served as spiritual and relational resources for reconstructing meaning. In particular, his resentment and lament toward God during caregiving turned into a confession that God had kept his mother to the end. By understanding dementia caregiving and bereavement as a continuous experience of loss, and by exploring the role of parental faith and the faith community in meaning re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a holistic direction for Christian counseling that embraces human dignity, lament, and communal care.

Key words: dementia caregiving, middle-aged men, parental bereavement, case study, Christian counseling

---

*InTouch Counseling Ministry / Counselor

www.kci.go.kr